

“일 잘하는 의회” 주력... ‘민생 우선 정치’ 실현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시민·여성의제’ 의정 차별성 추구
“진솔한 소통·화합 통한 원팀” 강조
광주발전 위해 여·무소속 연대 강화
시민 눈높이 맞춘 집행부 견제·협력
“정책지원관” 늘려 전문성 높일 것

“강하고 헌신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칠 각오도 돼 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8일 제9대 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신수정(51·북구3) 의원은 후반기 의정 포인트로 ‘민생 우선 정치’를 꼽았다. 북구 3선 의원 등 18년 간 풀뿌리 정치를 해 왔던 그는 지역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실히 실감했다.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 타이틀을 거머쥔 신 의장에게 최근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시의회 내부 갈등 봉합책 및 후반기 의정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회를 맞는 소회는.

△의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돋보인 전반기는 ‘공부하는 의회’였다. 이를 바탕으로 2038 아시안게임 연구용역 부실,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문제,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을 지적하고 개선했다. 원팀이 돼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했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며 조율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반기와 같이 협치·균형 잡힌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이자다. 소감과 각오는.

△광주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 당선시켜 준 것에 대해 동료 의원과 142만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수정’의 강점은 구의원 3선·시의원 재선 등 오랜 풀뿌리 정치 경험이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함께 여성의 차별성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



신수정 광주시의회장이 24일 “협치·균형 의정으로 ‘민생 우선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장실 제공

신수정 의장은

△1973년 광주 출생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사회문화복지정책)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제9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제8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제5·6·7대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다. 시민·의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헌신하고 소통하는 의장이 되겠다. 민생 정치를 하는 광주시의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내부 갈등 등에 대한 봉합책은.

△민주당의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편가르기·반목 등의 우려가 된지 않다. 지난 전반기 때는 주류·비주류 등의 갈등이 없었던 만큼, 금방 다시 ‘원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의장으로서 각 의원들

을 만나 진솔하게 소통해 나가겠다.

-‘일당 독점 타파’ 목소리가 높는데 소수당과의 협력 방안은.

△광주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과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석 수는 적을지라도 김 의원이 속한 국힘은 정부 집권 여당이다. 소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등 소속을 가리지 않겠다. 얼마든지 소통하고 연대하겠다. 실제 전반기 김 의원·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조례가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성된 바 있다.

-광주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과정은.

△집행부 수장과 의원 대다수가 민주당인 탓에 ‘의회가 광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강기정 시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만큼, 되레 견제할 때는 강하게 견제하고 협력할 때는 확실하게 협력하겠다.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며 집행부와 ‘운명공동체’로서 동행하겠다. 지역 현안에는 시의 협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런 사업들은 국회의원 과 공감대를 형성해 국비 확보 등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회의원-중앙정부 연계를 통해 국책 사업 유치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후반기 시의회의 핵심 현안 및 해결방안은.

△2년이란 시간은 짧다.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지방자치집을 개정해 ‘반쪽짜리 의회’를 없애야 한다. 현재 의회는 예산·조직권이 없어 조직에 관한 권한을 시장이 좌지우지 한다. 자리 하나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것이 해결되면 가장 먼저 ‘정책지원관’을 늘려야 한다. 현행법 상 의원 2명당 지원관이 1명 배정된다. 세밀한 정책 개발과 예산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 그간 집행부의 반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좌초돼 왔으나, 후반기에는 이 부분을 꼭 완수해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싶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전남도, 미래먹거리 ‘K-방산’ 시장 진출 모색

연구용역 착수... 중장기 전략 수립 내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 추진

전남도가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 우주항공 특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에 나서며 글로벌 미래첨단산업의 핵심 먹거리로 떠오르는 ‘K-방산’ 시장 진출에

돌입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기반의 최첨단 K-방산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한 ‘전남도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국내외 시장분석, 전남의 여건을 진단한 후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2025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도 도전한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방위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지역 기반의 중소·벤처 기업에 국방 연구개발(R&D) 기술지원, 벤처·창업지원, 유망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해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면 방산종합지원센터 건립, 장비·시설 구축, 특화연구소 운영, 창업지원 등 5년간 국비 24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경상·충청권 위주로 발전한 방위산업에 도전장을 내고,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 전남의 핵심 주력산

업인 광양만권 소재부품 산업 등과 연계해 순천·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특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학·연·관·군 업무 협약과 전문가 토론회,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 범 조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